

■ 업계동정 ■

LG電線(株), 대만에 초고압 케이블 공급

LG電線(株)(代表: 權炆久)이 국내 전선업계로는 처음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한다.

LG전선은 LG상사와 공동으로 대만 TPC社(Taiwan Power Compnay 臺灣電力公司)에 200만 달러 규모의 초고압케이블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제 입찰로 이루어진 이번 계약은 대만 전력공사가 타이페이 시내 架空線을 地中化하는데 필요한 161kV 地中 초고압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본의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비시 등 3개 업체와 영국 BICC, 프랑스 알카텔 등 모두 11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만은 20년 이상 일본 전선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보수적인 나라로 새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입찰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차별을 두어 왔는데 이번 LG전선의 진출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와 대만 현지 공관을 통해 대만전력공사측에 입찰 제한을 철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이끌어낸 LG전선 연구찬씨는 "이번 계약으로 향후 타이페이 등 대만의 주요 대도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소요될 초고압케이블을 공급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매년 3,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榮和産業電機製作所, ISO 9001 인증 획득

품질의 고급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榮和産業電機製作所(代表: 孔虎泳)가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으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번 품질 인증은 가스형, 오일형, 에폭시 몰드형 계기용 변성기류(변류기, 변압기, 변압 변류기) 에폭시 몰드붓싱 및 에폭시 절연물의 설계, 개발 및 생산 등 전 부분에 대한 품질 인

증을 획득함으로써 이전보다 확고한 품질인증 체계 확립하고 고객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생산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함으로

써 제품의 고급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LG産電(株), 전동공구 신(新) 브랜드로 해외마케팅 강화

LG産電(株)(代表:孫基洛)은 최근 전동공구 제품에 대한 해외 고객의 불편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수렴, 제품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전동공구 전 제품에 대한 통일된 제품 브랜드 전략으로 해외 전시회 및 제품설명회에 잇따라 참가하는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LG산전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최근 두 달간 잇따른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LG산전은 중국 복건성(福建省) 복주시(福州市)에서 개최된 『'99春季全國五金商品交易會』에 전동공구 『허리케인 시리즈』를 출품, 100여만弗의 수주 실적과 200여건의 상담 실적이 있을 정도로 新 제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LG산전은 지난 2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전동공구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3월과 4월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제품

설명회 및 로드쇼(LoadShow)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허리케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LG산전은 다음달 중국 지역에서 전동공구 순회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이 지역에 A/S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중국지역 전동공구 수출은 전년대비 50%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음달 태국, 인디아에서도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략도 지속적으로 전개, 올해 전동공구의 동남아 지역 수출 또한 전년대비 1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산전은 향후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전동공구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이 지역에 대한 위치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며, 중남미, 중동 등의 신규 시장 또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 빠른 시일내 新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壽永電機企業(株), 무정전전원장치 '우수제품' 선정

壽永電機企業(株)(代表: 金學俊)가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첨단시스템을 개발, 업계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우수제품 인정」을 획득했다.

수영전기는 최근 정부로부터 「파워모듈 일체형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 UPS 부문에 선 처음으로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전원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품은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량화·고성능화를 실현한 것은 물론 유지보수 시스템을 체계화한 고품질로 인정되고 있다. 수영전기는 이로써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은 물론 수의계약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수영전기는 UPS의 첨단 관리시스템인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설비없이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수십대의 UPS를 관리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사용방법도 간단하고 관리자는 모니터링만을 통해 모든 UPS의 전원상태 및 작동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東邦電機工業(株), 변압기 무선측정장치 국산화

전주나 지상에 설치, 실제 운전중인 변압기의 내부상태를 무선으로 점검할 수 있는 변압기 무선측정장치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東邦電機工業(株)(代表: 梁友鉉)는 지난 2년간 2억 5,000만원의 개발비를 투입, 주상 및 지상 설치형 변압기 등 각종 변압기의 부하전류 및 절연유의 온도를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변압기의 부하전류 측정기술에 무선통신 기

술을 접목시킨 이 장치는 변압기에 부착된 감지부가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30일분의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점검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연산처리해 준다.

이 장치 개발로 변압기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작동상태에서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 후크온 미터(Hook on Meter)등을 통해 부하전류를 손으로 측정하던 기존 방식의 위험을 덜게 됐다.

특히 각 수용가의 시간대별·장소별 부하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용량의 변압기를 선정할 수 있고 또 무부하손·설치비·

운영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등 이 장치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 및 경비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星光電氣(株), 시리아에 AVR 수출 계약 체결

UPS, AVR 전문업체인 星光電氣(株)(代表: 金泰公)는 최근 시리아 J.E.T사에 70만 달러 상당의 AVR 350대를 수출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성광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찰에 참가했으며 6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쳐 캐나다, 독일, 폴란드 등 외국의 경쟁사를 물리치고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치열한 국제입찰에서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성광의 제품이 기술과 품질, 가격면에서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1차로 올해안에 2백대 분량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의 J.E.T사는 관계(官界)에서 필요

로 하는 전력관리기자재를 자국내에 공급하는 회사.

성광전기는 “J.E.T사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관계를 강화, UPS, 정류기, 충전기 등으로 거래품목을 다양화 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성광전기는 지난 '88년 설립이후 건설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지난 '97년 KSA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 3월 KSA 9001 인증도 획득,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또 최근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300kV급 대용량 UPS를 자체 기술로 개발, 관련업계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株)케이디파워, 중국 합작공장 설립

전력벤처기업인 (株)케이디파워(代表: 朴鎭朱)가 중국 대련시 여순개발구에 있는 여순계원스위치회사와 합작계약 체결을 통해 '곤광

전기유한회사'를 새로 설립했다.

케이디파워 박기주 사장은 여순계원스위치회사의 로계웅 사장과 50:50지분 투자로 수

배전반, 차단기(VCB, ACB)등의 전력기기 생산공장인 곤광전기유한공사를 설립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곤광전기유한공사는 대지 5천평 규모에 건평 2천평으로써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5월 중순경에 준공예정이며, 주 생산품목으로 수배전반과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를 연간 1만대(1백20억원) 정도를 생산,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케이디파워와 곤광유한공사에 합작

투자한 로계웅 여순계원스위치 사장은 중국 전력청과 전기자재 판매상들에게 각종 전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기주 케이디파워 사장은 “국내에서 수배전반을 패키지화한 전력제어기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중국의 곤광유한공사를 설립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